

“아이고 배야”...가을철 ‘야생버섯 중독’ 주의보

SOCIETY

2025년 10월 1일 수요일

최근 3년 전남소방 21건 출동·병원 이송...10월 최다

“인터넷 등 잘못된 정보가 화 키워...바이러스 감염도”

원만한 가을 날씨로 야외활동이 늘고 있는 가운데 야생 독버섯을 식용으로 잘못 알고 먹었다가 중독 사고로 이어지는 사례가 빈번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30일 전남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3년(2022~2024년) 간 야생 버섯 섭취 관련 출동 건수는 총 21건으로, 연도별로는 2022년 5건, 2023년 9건, 2024년 7건으로 집계됐다.

월별로 보면 10월이 8건으로 가장 많았

고, 9월 6건, 7월 6건, 5월 1건 등의 순이었다.

독버섯 중독 증상은 복통, 어지러움, 구토의 경미한 증상부터 혼수상태, 장기부전, 뇌장애 등의 증상과 함께 사망에 이르게 된다.

대부분의 야생 독버섯은 식용버섯과 겉모습이 유사해 식용으로 오인하거나 잘못된 식용으로 중독사고가 발생한다.

특히 ‘색이 화려하면 독버섯이고 하얀 것은 식용버섯’, ‘버섯이 세로로 찢어지면

식용버섯’, ‘벌레가 먹은 것은 식용버섯’ 등 독버섯에 대한 잘못된 상식이 불상사를 키운다.

일부 인터넷 블로그나 AI 검색 서비스에서는 붉은사슴버섯이 면역력을 강화해 준다거나 항암, 항산화 효과가 있는 약용 버섯이라는 정보가 확산, 사고 발생 우려가 커지고 있다.

붉은사슴버섯은 화려한 외형으로 눈길을 끌지만, 소량 섭취만으로도 소화기, 신경계, 호흡기, 혈액, 피부 등 전신에 심각한 손상을 일으킨다.

실제로 전남 지역에서 독버섯을 먹었다가 119구급대가 출동한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10월13일 오후 10시44분 60대

남성 A씨가 구토와 설사 증세를 호소한다는 신고가 무안소방에 접수됐다.

구급대원은 A씨의 상태를 확인한 뒤 목포의 한 병원으로 이송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한 야산에서 품종을 모르는 버섯을 채취해 먹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22년 7월22일 오전 1시30분 영암군 영암읍 한 숙박업소에서 40~50대 태국인 남녀 3명이 구토와 함께 의식이 희미해진다는 신고가 119상황실에 접수됐다.

이들은 전남 오후 산에서 캔 버섯과 함께 술을 마신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당국은 이들이 독버섯을 먹고 중독 증상을 일으킨 것으로 보고 영암의 한 병

원으로 이송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국내 독버섯 234종을 기록했으며 주요 독버섯의 중독 유형별로 알려진 증상, 치료 방법에 대해 정리한 ‘우리나라 독버섯 생태도감’을 펴냈다.

산림청 국립수목원 관계자는 “장마가 끝나고 가을철로 접어드는 시기이면 산과 숲, 정원 등에 많은 버섯이 난다”며 “야생 버섯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경우가 있어 함부로 먹지 않아야 하고 마트 등에서 판매하는 검증된 식용버섯을 먹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

오늘의 날씨

예보 06:27 달맞이 14:53
예보 18:17 달맞이 --:--



광주	☀️	15~27
목포	☁️	18~26
여수	☀️	18~26
순천	☀️	16~27
구례	☀️	15~27
광주	☀️	15~27
매곡	☁️	15~27
임도	☀️	16~28
죽산도	☁️	20~25
진남	☀️	14~28
고동	☀️	14~25
진도	☁️	17~27

목포	밀물(고)	07:39 / 20:55
	썰물(저)	01:47 / 12:53
여수	밀물(고)	02:45 / 17:26
	썰물(저)	08:51 / --:--

3형제 오피스텔 성매매 알선

미네미거 확인하세요!
○...전남 순천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3형제가 현행법으로 경찰에 붙잡혀.

전남경찰청 풍속수사팀이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인 30대 A씨 등 3명은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알선했다. 이들은 순천시 연향동 인근 오피스텔 4곳에서 태국인 여성을 고용해 성 매수자에게 10만~25만원의 대금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피의자 3명은 친형제 관계로, 인터넷을 통해 홍보하거나 현금을 수거하는 등 역할을 분담하며 성매매 알선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오피스텔에서 성매매가 이뤄진다는 정보를 입수해 합동 단속팀을 구성, 주변 잠복 끝에 이들을 체포했다고.

또 현장에서 900여만원과 장부 등을 압수해, 임영진 기자 looks@

광주 증심사 공양간 화재 복원사업 ‘시동’

국가유산청, ‘현상변경허가심의’ 검토의견 통보
내년 상반기 착공 목표...화재 예방 환경 조성도

광주 대표 사찰인 증심사 공양간의 복원 사업이 화재 발생 1년 만에 본격 추진된다.

30일 광주 동구에 따르면 지난 12일 국가유산청에 국가유산보수정비사업 반영을 위한 증심사 공양간(식당) 화재 복원 기본계획서가 제출됐다.

증심사는 지난 8월 사업비 3억5000만원(국비 2억4500만원·시비 1억5000만원)을 교부 받아 용역사를 통해 공양간 조감도, 내부 구성, 연면적 규모 등이 담긴 기본계획서를 만들었다.

국가유산청은 지난 24일 ‘광주시문화유산위원회’에서 현상변경허가심의의 검토의견을 광주시와 동구에 통보했다.

이에 동구는 추석 이후 광주시문화유산 위원회에 현상변경허가를 승인받은 후 실

시설계에 착수할 계획이다.

동구는 내년 상반기 착공, 2027년 완공을 목표로 세웠다.

이와 함께 동구는 증심사 화재 예방을 위한 환경 조성에도 나서고 있다.

‘증심사 삼층석탑 주변 정비 사업 외 1개 사업’에 총사업비 7000만원을 투입했으며 연말까지 수목 정전, 소화전 보수, 해우소(화장실) 기와 교체 등 주변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광주 증심사 철조비로자나불좌상 정밀 진단 및 기록화’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5월부터 진행되고 있는 해당 사업은 정밀진단·기록화로 철조비로자나불좌상에 대한 보존관리 기초자료를 얻기 위해 총사업비 6000만원(국비 4200만원·시비 1800만원)을 들었다. 동구는 철조비로자나불좌상에 대한 진단결과를 바탕

으로 내년도 보전처리 사업에 반영할 방침이다.

증심사 비로전에 봉안된 이 불상은 통일된 균형미를 보이는 점이 우수하게 평가되며 철원 도피안사 철조비로자나불좌상(국보), 장흥 보림사 철조비로자나불좌상(국보) 등과 함께 통일신라 후기인 9세기경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동구 관계자는 “증심사는 무등산과 함께 천년을 지켜온 광주대표 사찰이다”며 “국가유산청, 광주시, 증심사와 협의를 거쳐 공양간 복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증심사 공양간은 지난해 9월29일 화재로 전소돼 소방 추산 4억2800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다.

증심사는 통일신라시대인 860년 철갑선사 도윤이 창건한 뒤 1094년(고려 선종 11년) 혜조국사 담진이 다시 짓고, 1443년(조선 세종 25년) 전라도관찰사 김방이 지었다.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

암 생존자 검진 회피 이유는 ‘지원 공백’

김미리·최유리 화순전남대병원 교수 연구팀

암 생존자의 정기검진 참여를 가로막는 요인이 ‘재발 불안’이 아닌 의료·심리·생활 지원의 공백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30일 화순전남대학교병원에 따르면 김미리·최유리 가정의학과 교수팀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암 생존자의 검진 참여에 대한 재발 두려움과 미충족 욕구의 매개 효과’란 논문으로 ‘2025년 대한가정의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우수연재발표상을 수상했다.

연구팀은 암 치료 이후 정기검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다차원적으로 분석했다.

조사 결과, 연령이 높고 소득 수준이 높은 암 생존자일수록 검진 참여율은 상대적으로 높았지만 ‘재발 두려움’(Fear of Cancer Recurrence)은 검진 참여와 직접적인 관련성을 보이지 않았다.

대신, 재발 불안이 클수록 의료·심리·생활 영역에서 지원이 충분히 이뤄

지지 않는 ‘미충족 욕구(Unmet Needs)’가 증가했고, 이 욕구가 많을수록 정기검진 참여율은 유의하게 낮았음을 확인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암 생존자의 정기검진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는 재발 불안을 단순히 완화하는 방식보다 의료·심리·생활 전반에서 나타나는 미충족 욕구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지원하는 전략이 더 효과적임을 시사한다.

이번 분석은 향후 암 생존자 관리정책을 비롯해 의료기관 상담체계, 맞춤형 지원모델 설계의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크다.

이산화 기자 goback@gwangnam.co.kr

한빛원전 1호기 설비고장...출력 감소 가동

한수원, 3C 전열관 누설 판단

했다. 급수가열기는 증기발생기로 보내는 물을 증기로 가열하는 설비다.

한수원은 이번 설비 고장이 저압급수가 열기인 ‘3C 전열관 누설’로 판단, 원자로 출력을 95.6%에서 79.0%로 조정했다.

이에 따라 터빈발전기 출력은 1006메가와트(MWe)에서 831메가와트로 감소될 예정이다. 정비에는 32시간가량 소요될 것으로 알려졌다. 영광-정규파 기자

한빛원전 1호기 급수가열기 설비 고장으로 발전기 출력이 낮춰졌다.

한국수력원자력 한빛원자력본부는 30일 한빛1호기 저압 급수가열기 고수위 경보가 발생함에 따라 정비를 위해 출력 감발(출력을 낮추는 것)에 착수했다고 밝

바로연

바른 만남 바른 결혼

초혼·재혼 무료상담 1644-5432 / 062-381-0009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지대로 173 대연빌딩 3층 (상무지구 롯데마트 옆)

광주·서구·국내·09·0005호